



[활동보고]

2021. 8. 30. (월)

우 150-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(연락처) 전화 02-781-2980 · 팩스 02-781-2989

국회 앞 연속 피케팅 "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고,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"

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논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, 언론노조는 국회 앞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.

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피케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말고, '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'등 제대로 된 언론개혁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.



2021년 8월 30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!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